



국내 포장산업 미래 이끄는 데 최선

최준영 / 순천청암대학 포장학과 1년

“우선 부족함이 많은 저를 장학생으로 선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용교 포장인상은 아무나 쉽게 받는 상이 아니라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제가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포장학문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9회 한용교포장인상 장학생 부문에 수상한 순천청암대학 포장학과 1년 최준영 학생은 “포장 산업은 제품의 꽃”이라며 “기능성 포장의 과학적인 효과와 쓰임새는 많은 학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장의 재료에 따라 제품의 보관과 저장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포장의 디자인에 따라 가격이 형성, 판매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포장산업의 중요성과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됐다.

어렸을 때부터 제과를 즐겨먹었던 최준영 학생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쪽 분야 특히 제

과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친환경 PET필름 포장지를 이용한 제과포장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다는 그는 “인력이 넘치는 다른 전공 분야보다는 노력여하에 따라 훨씬 선택의 폭이 넓은 포장 전공을 선택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포장학문은 발전은 결코 한 두 사람이 이끌어 나갈 수 없는 분야라고 강조하는 그는 포장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국의 모든 대학과 학생들이 총체적인 힘을 합하여 포장학문 발전과 전공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과 미래상을 차근차근 로드맵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배운 포장관련 전공지식들을 활용하여 국내 포장산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싶다는 최준영 학생.

그의 바람처럼 포장학문 연구 발전에 더욱 매진하여 포장산업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건투를 빈다. ☐

이한얼 기자

